

빈민여성에게 가해지는 집단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

남성 중심의 자본과 공권력의 교묘한 결합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우리 사회의 빈민들은 해방 이후 근대적 자본주의 지배질서에 편입된 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형성·강화되어 온 잘못된 경제구조와 이 잘못된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군부 독재권력,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즉, 농지개혁 실패, 60년대 이후 저임금·저곡가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 70년대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운용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80년대는 여전히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수입개방이 확대되자 농촌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 들면서 무자본, 저학력, 무기력 장년층·부녀층이 도시 변두리 달동네 판자촌에 정착하면서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물론, 도시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별반 나아질 것은 없다. 자본 축적과 부동산 투기로 재벌 건축업계가 호황을 이루면서 이들은 끊임없는 철거와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면서 살수밖에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적 권력을 갖는 가부장제는 인류의 가장 낡은 통치 제도이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닌,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한다. 가부장제가 처음으로 국가 통치 제도를 자리잡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즉, 남성의 권력은 곧 국가 지배계층의 권력과 맞물려 여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는 자본과의 결합도 볼 수가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성별 분업은 자본의 효율적 순환을 위한 노동분업과 맞물려 여성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전가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생산과 재생산 - 경제 영역의 분할은 곧 남성적 영역과 여성적 영역으로의 분할을 의미하게 된다.

빈민 여성들의 삶 - 빈곤과 성차별의 악순환

빈민 여성의 일상적인 생활고인 '집안 문제'와 '가사·양육의 문제'는 이것이 오로지 여성들의 개인의 문제라는 신념을 공고화시킨다. 즉, 여성들이 알아서 알뜰하게 살면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가부장적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말이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 - '모성애'에 대한 지극한 미화 - 은 여성들로 하여금 빈곤과 아이들의 교육 부족 등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 믿게 한다. 그나마 있는 공부방이나 탁아소도 운영하기 힘들게 되고 더군다나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면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빈민여성은 그들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활동에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가정적 존재라는 가부장적 고정관념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회피증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가사노동과 육아라는 이중적 역할에 시달리고 있다. 즉, 빈곤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내몰아치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자격미달' 조건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중적 갈등, 상호 모순적 관계에 얽히게 하는 것이다. 빈민여성은 한 사회에서 계급적 불평등과 성적 불평등이 최하의 수준에서 합치되는 영역에 처해 있다.

자본의 축적과 가부장적 권력은 상호 강화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난과 성차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빈민 여성들을 가둬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본의 논리와 남성 권력의 폭력적 발현은 바로 강제 철거 時 성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혹시나? 역시나 일어난 행당동 성폭력 사건

97년 9월 30일 오전 9시 경, 행당동 1-2 재개발 지구 철거 時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행당동 강제 철거를 위해 재개발 조합과 철거 계약을 맺은 적준 용역 소속 철거강패 300명과 서울 지방 법원 동부지원에서 1일 고용원 200여명을 동원했고 외곽에는 성동경찰서 소속 병력 3개 중대가 배치되었다. 강제 철거 반대를 위한 외부 집회 참석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역 출입이 봉쇄된 상태였고 몇 분만에 집들이 철거되었다.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10여명의 여성들은 철거강패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죽을 날 받아 놓은 년아. 늙어 X도 못할 년이 주접떠네.”라는 욕설과 함께 가슴을 걷어채고, 어느 여성은 옷이 다 벗겨진 채 속옷 바람으로 드러나왔다. 아이를 업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은 가슴을 물어 뜯겼으며 음부를 잡히는 수모를 당했다.

적준은 서울 지역 철거의 약 60-7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용역강패들을 동원해 이 전에도 수십 차례 철거 주민들을 폭행한 일들이 있어왔다. 현재 적준은 고소에 들어간 상태이고 성동경찰서는 직무유기로 고소된 상태이다.

행당동 성폭력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청량리 경찰서 경희대 여학생 성폭력 사건, 5·3 인천 시위 연행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 노동현장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윤간 사건..... 95년 암사동 철거지역에서 강동 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철거 대책위원장이던 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번3동 철거 당시 종암경찰서 경찰들의 주민과 학생에 대한 성폭력, 봉천동에서는 철거강패들이 주민 여성들은 집단 성폭행하고 경찰은 이를 지켜보기만 한 것, 재작년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일어났던 한총련 여대생들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 그나마 밝혀진 것이 이 정도이다. 경찰과 철거강패들은 시위 진압 또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과 성추행, 성고문을 상대방 여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행당동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력은 하나의 ‘해프닝’도 아니고 일회적인 사건도 아니다. 또는 강제 철거 당시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해도 부족하다. 빈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성폭력은 자본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권력과 남성중심의 권력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의 탄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는 항상 성폭력이 있어 왔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에겐 폭력이 단순한 ‘폭력’으로 다가오질 않는다. 성폭력으로 다가온다. 물리적 피해말고도 우리 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폭력, 특히 노동자 빈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묻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작은 철거 지역에서의 성폭력이 더욱 확대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시 성노예·집단 강간 캠프의 형태가 된다. 전쟁은 자본 축적에 목표를 둔 민족 국가간의 대립

이라 볼 때, 또한 군사문화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극대화된 남성성의 발현이라 할 때, 전쟁 때 여성들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치 독일, 보즈니아 내전, 르완다 내전, 일본군 위안부의 명목으로 조직된 성노예들,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의 위대한 용맹에 대한 보상으로 바쳐진 베트남 여성들..... 이들 여성은 가난하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여성들에게 경제력이 거부되는 이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성폭력인 것이다. 성폭력은 여성들을 끊임없이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가둬 놓으려는,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려는 지배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보다 전면적인 저항을 위하여

우리가 빈민 여성이 당해야 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는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민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성차별 - 저임금, 불안정 노동 등 - 부터 강제 철거 때 일어나는 잔인한 성폭력을 밝혀내면서 이 사회의 지배계층이 돌아가는 그 교묘한 방식을 읽어내고 보다 효과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을 일궈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침묵 속에 묻혀져 온 여성들의 고통이 외침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외침들을 또 하나의 역사로 엮어나가는 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철거지역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단지 거대 폭력의 한 부분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자본과 공권력과 남성권력이 교묘하게 얹혀 여성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대응하는 독자적 실천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응하는 투쟁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복귀하는 것과 그것을 사회화시키는 작업, 순결이데올로기와 모성 이데올로기의 타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전면적인, 남성만이 아닌 민중 여성들의 해방까지도 이룩할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지속적인
• 공론화 - pc 통신, internet site, 언론.

• 여성 사회 단체들 - 법률제정으로 힘을 싣고 있음.

• 종교적인 믿음들 - 사회적인 입장들
(개인적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